

SK 최태원 회장, 장애아와 특별한 X-Mas

최태원 SK 회장이 3년째 중증장애아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최태원 회장은 12월25일 중증장애아 보육시설인 서울 후암동 <가브리엘의 집>을 찾아 서울 명동의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처음으로 친구의 소개를 받아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해 매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가브리엘 집의 중증장애아들과 함께 보내왔다.

최태원 회장은 10월 중순 작업복 차림에 리어카를 끌고 서울 청운동에서 연탄을 배달했으며, 5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근로복지센터 <위캔>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40명과 함께 쿠키를 굽기도 했다.

<화학저널 2005/12/27>